

복막 투석 환자에서 관찰된 가성낭종을 동반한 급성 췌장염 1예

가천의대 중앙길병원 내과

경선영 · 황준규 · 주권욱 · 차미경 · 박종재 · 이종호

만성 신부전 환자는 요독증의 영향으로 췌장 질환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지속성 복막 투석 환자는 투석액과 도관에 의한 자극, 복막염, 고지혈증 및 고칼슘혈증 등의 위험인자와 관련되어 급성 췌장염이 관찰될 수 있다. 그러나 복막 투석 환자에서의 췌장염의 진단은 임상적으로 어려울 경우가 많다. 연자 등은 3년간 복막 투석을 시행한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가성낭종의 합병증을 동반한 전형적인 급성 췌장염의 소견을 보인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46세 여자 환자로 6년 전 만성 신부전과 고혈압 진단받고 3년 전부터 복막 투석 중이었으며, 내원 2주 전부터 시작된 오심, 구토 및 하루 전부터 시작된 상복부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혈압은 130/70mmHg이고 열은 없었으며, 복부 진찰 소견에서 상복부 압통과 동쪽으로의 방사통이 관찰되었다. 도관 출구부의 발적, 압통, 분비물 등은 없었고, 투석액 성상은 정상이었다. 검사실 소견은 혈색소 10.6 gm%, 백혈구 16,070 /mm³(다형핵 백혈구 83%), 혈소판 429,000 /mm³이었고, AST 53 IU/l ALT 26 IU/l 이었으며 total cholesterol 383 mg/dl, triglyceride 609 mg/dl 이었고 calcium 9.8 mg/dl, phosphate 2.3 mg/dl, amylase 166 IU/dl, BUN 11.4 mg/dl, creatinine 5.2 mg/dl 이었다. 투석액 검사 소견은 WBC 6개, Gram stain 및 배양 검사는 음성이었다. 내원 3일째 amylase 466 IU/dl, lipase 1,068 IU/dl 이고 상복부 동통 지속되어 시행한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췌장의 종대 등의 소견이 보여 급성 췌장염으로 진단하고, 금식, 위도관 삽입 및 항생제 등의 보존적 치료로 상복부 동통 완화되었다. 그러나 오심, 구토 등은 지속되었고, amylase는 정상으로 떨어졌으나 lipase는 300IU/dl 이상의 비정상 소견이 계속되어 입원 36일째 시행한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위 후벽에 인접한 직경 7cm의 가성낭종이 발견 되었다. 전신 상태가 수술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내시경적 도관 삽입으로 internal drainage 시도하였으나 적절한 배액에 실패하고 복막염, 패혈증, DIC로 진행하여 사망하였다.

혈관 확장술에 반응하지 않는 동정맥루의 정맥 협착증에 대한 혈관내 스텐트 치료효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영욱, 윤선애, 신미정, 박주현, 양철우, 김용수, 최의진, 방병기

동정맥루의 정맥 협착증을 치료하는 비수술적 방법으로 경피적 혈관 확장술은 임상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 환자에서는 혈관 확장술에 반응하지 않으며 또한 재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혈관 확장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에서는 혈관내 스텐트 삽입술이 시도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보고가 많지 않다. 이에 혈관 확장술에 반응하지 않는 동정맥루 정맥 협착증에 대한 혈관내 스텐트 치료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환자는 혈관내 스텐트 치료를 받은 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환자의 평균연령은 55±12세(37-63세)였으며 남자 3명 여자 5명이었다. 원인 신질환은 당뇨병성 신증, 고혈압성 신증, 다낭성증이 각각 2명이었고 만성 사구체신장염과 원인불명이 각각 1명이었다. 동정맥루 수술횟수는 초치가 5명이었고 나머지 3명은 2회 이상이었다. 동정맥루 형태로 자가혈관이 4명이었으며 위치는 전완이 7명이고 상완이 1명이었다. 동정맥루 수술후 동정맥루 기능이상이 발생한 기간은 13±14개월(1-48개월)이었다. 동정맥루 기능이상의 증세는 상지부종이 7예였으며 나머지 1명은 갑작스런 동정맥루 혈류차단이었다. 정맥조영술 결과 완전폐쇄가 5명, 심한 협착이 3명이었으며 위치는 무명정맥과 쇄골하정맥이 각각 2례로 중심정맥이 4예였고 나머지 4예는 동정맥루 상부정맥에서 발생하였다. 중심정맥 폐쇄 및 협착증이 있는 4명은 모두 쇄골하정맥 도관삽입의 과거력이 있었다. 전체 8명의 환자에서 혈관 확장술을 시행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여 혈관내 스텐트를 삽입하였다. 스텐트의 크기는 구경은 10.7±1.4mm(10-14mm)였고 길이는 5.3±1.0cm(4-7cm)이었다. 전체 8명 모두에서 성공적인 시술이 이루어져 부종의 증세가 호전되었고 혈액투석이 가능하였다. 시술시 별다른 합병증은 없었다. 평균 7.4±4.2개월(3-15개월)의 추적기간동안 1명이 동정맥루가 폐쇄되어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7명에서는 별다른 증세 없이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 이상의 결과 혈관내 스텐트 삽입은 혈관 확장술에 반응하지 않는 동정맥루의 정맥 협착증의 치료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료된다.